

간추린 소식



2026년까지 개방형 휴게소 11곳 조성 계획

국토교통부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24년 이천, 논공, 강천산, 춘향/ 25년 신탄진, 입장/ 26년 섬진강 양방향)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문화·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장, 문화·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8일 개장한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

▶ 정읍 휴게소(천안방향)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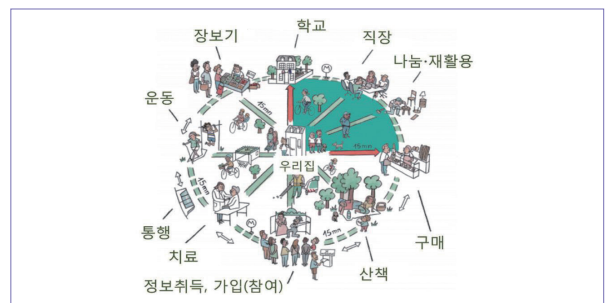
용어해설



15분 도시

‘15분 도시’란 15분 내로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거주, 업무, 생활서비스, 보건·의료, 문화·체육 등에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초근접성을 기반으로 한다. 15분 도시는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파리 제1대학 팡테옹-소르본)가 창안한 개념으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2020년 선거에서 정책공약으로 채택했다. 15분 도시는 도시계획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반영하며, 시간대에 따라 장소의 용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 또한, 내가 머무르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길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 또한 자유로운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도로변 주차공간은 자전거 보관소, 주변 상인의 상품보관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생활환경 가까이에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근거리 서비스 기반 15분 도시 개념



자료: 이수진, 허동숙(2021)

참고문헌

1. 이수진, 허동숙, 2021,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 정책공약,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국토연구원
2. 파리기업행정연구소, 2022, 15분 도시 백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